

덕지덕지 나붙은 당선축하 현수막 '눈살'

6·13 지방선거 이후 길거리에 설치되는 각종 당선축하 현수막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눈살을 지푸리게 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들이 길거리에 내건 선거용 현수막도 뒷정리가 늦어져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일부 선거후보 사무실 외벽에 붙은 대형사진 현수막과 전단지 등도 어지럽게 널려 있어 관계당국의 신속한 처리가 절실하다.

17일 광주지역 일선 구청 등에 따르면 6·13지방선거 이후 당선을 축하하는 현수막들이 잇따라 내걸리고 있다.

현수막은 당선인 관련 단체나 동문회·지역사회단체 등이 내거는 것으로 '당선을 축하한다'거나 '지역발전

주요 교차로 등지 4~5개씩 주렁주렁 걸려

도시미관 저해·보행자 운전자 시야도 가려

위해 힘써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낙선자 등도 '유권자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민심을 귀담아 듣고 반성한다' 등의 현수막이 내 걸려 있다.

이런 당선 및 낙선 등의 현수막은 광주 주요도심의 교차로 등 시민 왕래가 잦은 곳에 적으면 2~3개, 많으면 4~5개씩 무분별하게 내 걸리고 있다.

실제, 동구 대의동 (구)한미소풍거리에서 시장 당선인인, 구의원 등 각각 4명의 당선 현수막이 내 걸려 미관을 해치고 있다.

대부분의 현수막은 도로변 가로수나, 전신주 그리고 가로등에 설치돼 문제가 된다.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보행문제와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등에 지장을 주고 있다.

더욱이, 현수막이 장시간 방치될 경우, 전력설비와의 접촉으로 정전까지 우려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현수막 설치시 자치단체나 광고물협회 등을 통해 하고 반드시 지정계시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이 규정을 따르지 않은 당선

축하 현수막은 불법이다.

다만, 선거법은 후보자가 직접 게시하는 당선 또는 낙선사례 현수막에 한해 선거일 다음 날부터 13일간 해당 선거구 읍·면·동 별로 1장씩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선거법 적용을 받는 현수막이 아닌 광고물법 적용을 받는 당선축하 현수막 중 지정계시에 설치되지 않은 것은 철거 대상이다.

그러나, 이들 현수막을 단속해야 하는 각 자치단체는 속 앞일을 하고 있다.

당선자들이 행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데다가 현수막을 내건 단체들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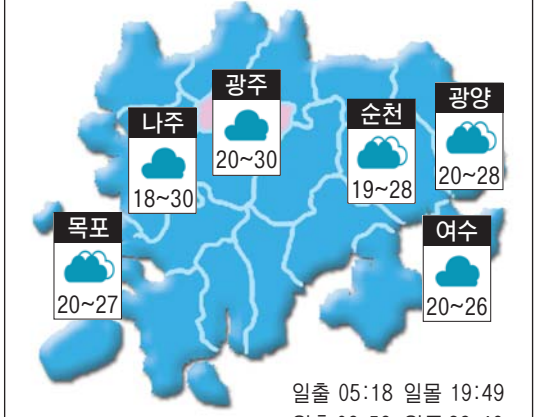
때문에, 일부에선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단속 대상인 다른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주민 김 모씨 (42)는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아직까지 선거현수막들이 곳곳에 내걸려 있어 미관상 보기 좋지 않고, 보행과 안전운전에도 장애가 뒤따른다"며 "선거 이후에도 당선축하 및 낙선에 대한 여러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는 것은 공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일선구의 한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직후이어서 당선축하 현수막을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철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광민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17~29	흑산도	17~24
담양	18~29	구례	17~30
화순	18~29	곡성	17~30
영광	18~28	완도	19~27
함평	19~29	강진	18~28
무안	18~27	장흥	18~28
영암	17~29	해남	17~28
진도	18~27	고흥	18~27
신안	19~27	보성	17~27

일출 05:18 일몰 19:49
월출 09:59 월몰 23:46

목포	만조 05:42 17:48	여수	만조 00:14 12:28
	간조 10:47 22:52		간조 06:19 18:28

문의: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용역 업체서 돈 받은 교수 징계 부당

연구용역을 수행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교수에 대한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돈이 뇌물이 아닌 정당한 자문료로 봤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국립대 이모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감봉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3,600만원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금품이 정당하게 제공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며 이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금품을 모두 주거래계좌로 받았고, 과세 관청에 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점, 자문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이 교수는 2010~2012년 용역·연구 과제 책임자로 있으면서 한 업체를 참여시키고 이 업체로부터 5차례에 걸쳐 3,600만원을 받았다.

/고광민 기자

뺑소니 차량 검거 도운 택시기사 표창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5일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외제차 운전자를 추격해 검거를 도운 택시기사 정 모씨 (49)에게 감사장과 보상금을 수여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 50분께 북구 예술고사거리에서 BMW 차량이 신호 위반해 좌회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장면을 운전하다 목격, BMW 차량을 약 800m 뒤쫓아 가며 경찰에 신고한 정씨는 신호를 기다리는 앞차에 막혀 잠시 서행하는 BMW 차량을 가로막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범인을 검거하게 도왔다.

무등산 탐방객 2,000만명 국립공원 승격 5년만에 돌파

지난해 351만명 찾아 전국 4위

지난 2013년 국립공원 승격 이후 무등산을 찾은 탐방객 수가 2,000만명을 돌파했다.

17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 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이달 14일까지 누적 무등산 탐방객 수는 2,000만 2,914명에 달했다.

국립공원 승격 원년에는 396만 8,497명, 2014년 381만 8,275명, 2015년 360만 9,717명을 기록했다.

2016년 357만 1,712명, 지난해 351만 3,576명, 올해는 이달 14일까지 152만 1,137명이 무등산을 찾았다. 연간 350만명 이상이 꾸준히 무등산을 방문했다.

지난해 무등산 탐방객 수는 한려해상(715만명), 북한산(595만명), 설악산(369만명)에 이어 전국 22개 국립공원 가운데 4위를 차지했다.

국립공원 승격 이후 15차례 열린 정상개방 행사에는 모두 5만 9,244명이 참여했다.

무등산공원사무소는 정상 정복형 수직 탐방에 쏠린 등산습관을

저지대 수평 탐방 등으로 전환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안내표지판 856개를 새로 설치하고, 재해문자 전광판을 4곳에 구축했다.

중심·정풍·만연 등 탐방지원센터 9곳을 운영하며, 58종 536개 응급처치 및 구조 장비도 비축했다.

쾌적한 탐방을 위해 공중화장실 10곳을 신축하고 8곳을 정비해 모두 18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도 81억 8,900만원을 투입, 전체 탐방로 165km 63개 노선 가운데 50.7km 43개 노선을 정비하기도 했다.

1988년 전남 영암 월출산 이후 25년만인 2013년 3월 4일 국립공원으로 승격한 무등산은 해발 1,187m의 높이에 4,012종 생물자원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다.

무등산공원사무소 관계자는 "국립공원에 걸맞은 품격과 위상,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충찬 기자



통일 모내기 행사 16일 오전 광주시 서구 용두동 통일살결작지에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광주본부와 (사)광주시남북교류협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한반도 통일 모내기 통일농사 기원제 및 모내기행사'에 참가한 광주시농민회, 시민 등 관계자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사회재난 사망자 최근 5년간 946명

광주시 재난통계 연보 첫 발간

최근 5년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946명이 사망했고 재산피해도 19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17일 '2017 광주재난안전 통계연보' (2016년 12월 31일 기준)를 발간했다 밝혔다. 재난안전 관련 정보만을 모은 통계연보 발간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보에 실린 최근 5년간 자연재난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광주에서

강풍·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재산피해 185억원과 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태풍(176억원), 강풍(8억원), 대설(6,600만원), 호우(500만원) 순이다. 인명 피해는 폭염 4명, 태풍 1명 등이다. 교통사고·화재·산불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재산피해 198억원과 사망자 946명이다. /조기철 기자

이중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508명이었고, 감염병(342명), 화재(30명), 수난(28명), 추락(21명) 순이다.

통계연보는 최근 5년간(2012~2016년) 자연재난·사회재난·안전관리 등 유형별로 분산된 재난안전 관련 통계를 37개 분야로 종합해 담았다.

특히 재난유형별 발생원인과 피해 상황,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분석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

안전관리 분야는 자살·범죄·구조·구급 등 발생 건수와 대상별·월별·연령별 등으로 구분해 수록했다.

/조기철 기자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호남 최대 호텔식부터 카페 컨셉까지 **웨딩 복합명소**

P&J 웨딩홀 · JS 웨딩컨벤션

대규모 연회장에서 각 행사에 걸맞는 최첨단 조명, 음향 시스템으로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 기업행사, 대형행사**에서 소규모 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회연출이 가능합니다. 귀빈을 모시는 마음으로 고객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피앤제이 웨딩홀 062)361-6677~8 상무시민공원 맞은편 태양열주차장 뒷편

JS 웨딩컨벤션 062)385-7011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886-2번지(태양열 주차장 뒷편)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1천300여대 동시주차 가능